

함평군,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밀그림’

207억 투입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2024년 말 준공 목표 정주여건 개선

함평군이 지역 기초생활 기반 확충을 통해 합평읍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어울림 커뮤니티센터’의 본격적인 밀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함평군은 30일 “건축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함평군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근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행정·문화·복지 등 원스톱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함평군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중심지 기능 강화와 더불어 배후 마을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공모에는 ㈜세상종합건축사사무소·㈜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가 공동 합작으로 출품한 작품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건축물 배치, 공간 구성 등이 군 환경과 조화를 이룸과 주변 시설과 연계성·친환경성 등에서 심사위원 모두에게 호평 받았다.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207

억원을 투입해 함평읍 기각리 789-3번지(함평군청 옆 부지) 일원에 연면적 3천797㎡,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은 주차장 기계·전기실, 지상 1층은 합평읍사무소, 공동보육시설, 건강증진실 등이 들어선다. 지상 2층은 공유주방, 회의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된다.

군은 설계 당선작 선정을 통해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센터 착공에 박차



함평군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 공모에 ㈜세상종합건축사사무소·㈜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가 공동 합작으로 출품한 선정작 조감도. (함평군 제공)

를 가할 계획이다.

이상의 군수는 “어울림 커뮤니티센터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명품 함평’에 걸맞은 실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립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기자



강종만 영광군수는 최근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를 방문해 이용보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류철혁 서부지소장 등 관계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영광군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방문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대책 논의

강종만 영광군수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를 방문했다.

이날 강 군수는 이용보 동물위생시험소 소장과 류철혁 서부지소장 등 관계자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대책에 대해 논

의했다.

강 군수는 서부지소 이전과 시설 건립 연혁을 듣고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는 전남도의원 시절부터 영광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방문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가축전염병 검사기관이 영광군에 위치하고 있

어 영광군 축산농가들은 질병 검사의 접근성이 용이해 치료와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서부지소가 관할하는 전남 서부 지역은 매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으나 영광군에서는 농가 교육과 방역활동에 노력한 결과, 2014년 이후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기자

영광군의회, 소상공인 지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중로 광장시장·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영광군의회는 30일 “최근 소상공인 지원정책 우수사례 발굴 관련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한균 영광군의회 부의장, 장영진 의회운영위원장, 조일영 산업건설위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전통시장인 서울 중로광장시장, 경기도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의원들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영광군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군의회 차원에서의 역할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업종 별 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

인 자영업자를 말한다.

2022년 1월1일 기준 영광 관내에는 3천724명으로 파악되며 이들이 고용한 가족을 포함해 근로자의 수가 지 감안한 다면 실로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커다란 축이라 할 수 있다.

김한균 부의장은 “소상공인 집단은 넓게 바라보면 농·축·어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또 하나의 기반산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선순환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영광군, ‘트립메이트’ 초청 팸투어 실시

백수해안도로·불갑사 등 주요 관광지 체험

영광군은 30일 “최근 서울시 대학생 지역상생 홍보단 ‘트립메이트’ 13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트립메이트는 지역관광 콘텐츠를 새롭게 발굴하고 확산하는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모집한 대학생 관광 홍보기자단이다.

대학생의 신선한 안목으로 서울과 지방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홍보한다.

이번 팸투어는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남도 문화관광체험 페스티벌’과 올해 2년차를 맞는 영광군 관광두레 사업과 연계해 진행됐다.

영광 팸투어팀은 첫날 백수읍에 위치한 한옥 체험마을에서 모시 천연 염색을 체험했다. 이어 간다라 불교 문화의 예술을 느낄 수 있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숲쟁이 공원 등을 방문해 꽃과 나무사이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걸으며 법성포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오후에는 기암괴석과 황홀한 노을이 장관을 이루는 아름다운 백수해안도로로 이동해 노을전망대 위 스카이라이프를 걸으며 인생샷을 남겼다.

첫날 여행을 마친 투어팀은 농촌휴양 체험마을인 놀마을에서 하루를 보내며 남도 바로알기 특강, 시 쓰기 등 레크레

이션에 참석했다.

이튿날은 영광군 문화관광해설사의 명쾌한 해설을 들으며 천년고찰 불갑사 전동여행을 했다. 영광군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와 함께 불갑상사화피는마을에서 도자기체험을 하며 흥미를 더했다.

팸투어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여름의 끝자락 영광에서 역사, 관광과 체험이 결합된 특별한 여행을 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매력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서울시 대학생 관광홍보단이 영광을 널리 알려 지역 관광 산업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함평 단호박’ 일본 수출 재개

약 10t 규모...224개 농가 재배

함평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단호박 수출을 2년여 만에 재개했다.

함평군은 30일 “이날 오전 천지영농조합법인에서 단호박 10t 일본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상차식에는 전남도농업기술원 김도의 자원경영과장을 비롯해 군 관계자, 천지영농조합법인 대표,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군은 올해 농촌진흥청 주관 ‘원예특용

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돼 단호박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등 고품질 단호박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관내 224개 농가에서 122ha 규모로 단호박을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1천640여톤의 단호박이 생산되고 있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출로 함평 단호박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기자

함평천지물, 추석 특별기획전 품목 20% 할인 등 혜택 풍성

함평군이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함평천지물 특별기획전’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30일 “추석 명절을 맞아 ‘함평천지물’에서 오는 9월18일까지 농축수산물물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구매자에게는 함평천지물에서 판매되는 전 제품(특가상품 단호박 제외)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특히 20% 할인쿠폰(최대 2만원)은 신규 가입 고객에게 지급되는 5천원 쿠폰과 중복 사용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함평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 2만원 이상 구매 후 포토 후기를 남기면 매주 5명에게 5천원 쿠폰이 발행되는 등 추석 맞이 풍성한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함평=김연수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광주의 새벽을 여는 곳 남광주시장

남광주시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수산물시장입니다.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광주시장은 1930년 ‘신광주역’의 개통과 함께 벌고, 보성 등에서 직접 잡고 기른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을 열차에 싣고 와 팔던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수산물, 야채, 국밥골목 등이 대표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문화관광형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주의 역사·문화 그리고 시장이 가진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진일보 하고 있는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후원 : 광주광역시동구 문의 : 062)650-2099